

Global Goings-on

바꿀 수 없다면 불평하지 마라 Don't complain about things that you can't change

- ▶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발적 이민 물결은 한 세대 만에 중국의 도시들과 세계 경제를 바꿔 놓아
 - 그러나 지방에서 이민을 꿈꾸는 세대와 2세대 이민 자녀들의 삶에 대한 기대도 함께 올라 중국의 도시들 앞엔 엄청난 과제가 놓여
 - 2세대 이민 자녀들은 도시에서 자랐으나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직업이나 교육은 부모 세대와 별반 차이가 없어
- ▶ 이미 차세대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경했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
 - 상해로 이민 온 인구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세 배 증가해 2천3백만 상해 인구의 9백만을 육박해
 - 상해에 거주하는 20~34세 7백5십만 명 중 거의 60%가 이민자
- ▶ 차세대 이민자들 중 대부분은 부모들이 이민 왔을 때 가졌던 직업과 합숙소 침대를 고스

란히 물려 받아

- 중국통계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 이민자들 중 44%가 제조업에, 10%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어
 - 여러 조사에 의하면 이들 청년 이민자들은 최근 몇 년 간 공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대폭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업과 생활에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나
 - 이민 온 부모들과 함께 도시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보다 안락한 생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 이를 만족시키기가 어려워
 - 좌절된 욕망 때문에 이민 2세대는 부모들과 달리 한 직장에 머물지 않고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계속 옮겨 다녀
- ▶ 스웨덴 세이브 더 칠드런의 베이징 사무소의 파트너인 The Center for Child-Right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는 2011년 중국의 다섯 지방에서 직물 공장 근로자로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바 있어
 - 응답자의 다수가 지난 2~3년간 일을 시작한 뒤 적어도 두 번 직장을 옮겨
 - 거의 절반 정도의 응답자는 일의 지루함에

- 대해 걱정하며 자신들의 직업 전망에 좌절하고 있어
- 일이 편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6%에 불과
 - 한 근로자는 자신들이 마치 기계와 함께 일하는 로봇이 된 것 같아서 일이 싫다고 연구자에게 말해
- ▶ 보다 나은 직장에 장애가 되는 한 요소는 다름 아닌 이들의 부모
- 중국의 호적 제도에 의하면 호적이 시골로 되어 있는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는 부모가 도시로 이주해 도시에서 살든지 혹은 그들이 도시에서 태어났는지 상관 없이 호적 주소지가 시골로 등재돼
 - 2010년 상해에는 공식상 “이민자”로 분류된 6세 이하 아동이 3십9만 명에 달해
- ▶ 이민자 자녀들은 상해 원주민인 부모들의 자녀와는 다른 길을 걷도록 날 때부터 정해져
- 이민자 자녀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으나 상해에 있는 고등학교에는 입학이 거부돼
 - 부모들보다는 좀 더 나은 교육과 학교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부모들과는 다른 직업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상황과 교육은 대학 교실보다는 공장에 맞춰져
- ▶ 지난 수년 간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호적 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해
- 호적의 주소지가 시골로 등재된 자녀들은 부모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며 또한 많은 자녀들이 농장에서 일해 본 경험도 없지만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어
- ▶ 그러나 변화는 쉽게 찾아올 것 같지 않아
- 첫째, 중국의 공장들은 여전히 많은 수의 이민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현 시스템은 이러한 필요를 채워 주는데 적합해
 - 둘째, 중국의 도시들은 이민자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아무런 계획 없이 이민자들을 받아 들여 와
 - 상해에는 1십7만 명의 고등학생들이 있으며 상해에 거주하고 있는 15~19세의 5십7만 명의 이민 자녀들은 고등학교에 갈 수 없어
 - 이에 대해 어린 이민자들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Shanghai Charity Education and Training Center의 Xu Benliang 부국장은 “상해 정부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교육 자원을 먼저 상해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센터가 가르치고 있는 어린 이민자들에게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해
- ▶ 똑똑한 청년 이민자들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교육적 대안은 직업 학교
- Shanghai Vocational School of Technology and Business의 교외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의 절반은 이민자적이고 나머지는 상해 주민 자녀들
 - 이 학교에 있는 상해 주민의 자녀들은 상해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에 입학할 실력이

부족해서 이 곳에 있는 만큼 이 곳에서는 이민자 자녀들이 주인공

- ▶ 16세의 Zhang Xiaohan은 상해로 이민 온 부모들과 함께 살기 위해 중국 중부의 헤난성에서 5년 전 이민 와
 - 아버지는 가구 상인이고 어머니는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며 그녀는 컴퓨터를 공부하고 있어
 - Zhang양은 일반 고등학교 졸업장과 대학교육의 기회를 얻고 싶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제가 적응해야죠.”라고 말해

2012년 6월 2일 / The Economist

〈원문링크: <http://www.economist.com/node/21556271>〉

인구와 소비: Rio+20 정상회의 Scientists urge Rio moves on population and consumption

- ▶ 전 세계 100여 개 이상의 과학 학회들이 Rio+20 정상회의에 모이는 정상들이 인구와 소비에 대한 실제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해
 - 이들은 이 문제들에 대한 과거의 실패가 세계와 미래 세대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해
 - 과학 학회에는 영국의 Royal Society를 비롯해 다양한 개발 단계에 있는 국가들의 학회들이 포함돼
- ▶ 다음 주에 개최될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회담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 간 합의점을 찾으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듯
- ▶ 과학 학회들의 공동성명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전문가들이 합치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어
 - 성명서에서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인구와 소비에 대해 새로운 초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성명서 작성을 주관했던 University of Oxford Martin School의 Charles Godray 교수는 말해
 - 그는 이제 세계는 인구와 소비를 동시에 살펴야 한다고 주장해
- ▶ 세계 인구는 현재 70억 정도이며 대부분의 추계에 따르면 2050년까지 80억에서 110억까지 증가한다고 성명서는 밝히고 있어
 - 전세계 소비 수준도 선진국의 높은 국민 1인당 소비 때문에 역사상 가장 높아
 - 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수준의 음식, 물, 에너지를 얻으려면 선진국은 자연 자원 소비량을 줄여야만 해
 - 과학자들은 지금과 다른 경제 모델을 추구한다면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고서도 이 것이 가능하다고 말해
 - 이들은 변화에 실패한다면 세계는 재앙에 가까운 미래에서 돌이킬 수 없을 지도 모른다고 말해
- ▶ 인구와 소비라는 주제는 둘 다 Rio 정상회의에서의 협상 주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

하는 수준보다는 약한 수준으로 다뤄질 것 같아

- 현재 각 국 정부는 각 국의 국가, 농촌, 도시 개발 전략 및 정책에서 인구 동향과 추세를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데 동의할 예정이지만 지속 가능하지 못한 소비와 생산 패턴을 바꾸는 조항을 협약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EU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 ▶ 지난 수십 년간 개발도상국들은 인구를 이산화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못한 소비에 대한 대화를 회피하려는 선진국들의 책략으로 봐
 - 그러나 나이로비 소재 African Institute for Development Policy의 Eliya Zulu 원장은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
 - 그는 BBC News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인구 성장의 영향을 느끼고 있으며 성장을 지속하고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인구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해
 -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국가 중 하나인 르완다에서 정부는 집단 학살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인구는 많은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어
 - 또한 1980년대 후반 시작된 경제 침체로 인해 르완다 사람들은 인구가 계속 급속히 성장하는 한 MDG를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해
 - Zulu 박사는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여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녀를 출산했다는 증거가 축적돼 있다고 말해 -

정치인들이 가족계획을 확장할 인센티브

- ▶ 협상을 주재하는 Sha Zukang씨는 시간이 되면 이견은 조율될 것으로 낙관해

2012년 6월 13일 / BBC News

〈원문링크: <http://www.bbc.co.uk/news/science-environment-18422619>〉

중국의 독신들

Singletons are getting some help finding a mate

- ▶ 5월 26, 27일 양일간 상해의 중매 엑스포에는 4만 명이나 몰려 들었지만 Yu Bin씨는 그들 중에서 장래 아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아
 - 26세의 경찰관인 Yu씨는 자신을 보수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며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여성을 찾고 있어
 - 현재까지 상해에서 열린 엑스포 중 가장 큰 엑스포에 참석한 Yu씨는 엑스포에는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오히려 동료나 부모가 중매해 주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기를 원해
 - Yu씨는 30년 전에는 다들 그렇게 결혼했다고 말해
- ▶ 거대한 엑스포 공원 반대편에선 Fancy Huang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닮고 있어
 - 25세인 그녀가 중국에서 “남겨진 여성”이란 뜻을 가진 shengnu로 불리기까지는 2년

- ▶ 밖에 남지 않아
 - 그녀의 사촌들은 모두 결혼했기 때문에 부모는 그녀에게 계속 압력을 넣고 있어
 - Huang씨의 어머니는 딸이 가끔 아파트를 혼자 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불평해
- ▶ Yu씨와 Huang씨는 중국의 현대 결혼 시장을 둘러 보는 수 천 명의 청년들 중 둘에 불과
 - 엑스포에서는 이들을 도우려는 손길이 넘쳐나
 - 한 쪽 무대에서는 자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매력적인 여성이 공개 중매 세션을 진행하고 있어
 - 독신남이 무대에 올라 12명의 독신녀들에게 노래를 불러 주면 이들은 웃는 혹은 우는 표정의 팻말을 들어
 - 다른 곳에서는 스피트 데이팅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 결혼회사들은 서로 독신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경쟁하며 이들의 웹사이트들은 중국 내에서 매우 유명해
 - 심지어 Jiayuan이란 사이트는 미국 NASDAQ에 상장되기도 해
- ▶ 지난 30년간 중국인들의 배우자를 찾는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겨
 - 유교적 사상은 결혼이 개인에 미치는 의미보다는 사회에 미치는 의미를 강조했음.
 - 비록 정혼은 1950년에 금지되었으나 부모들과 동료들은 여전히 남녀가 짝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
- ▶ 도시를 중심으로 자기 짝을 스스로 찾기 위해 부모나 동료의 도움으로 결혼하는 경향이 감소하는 추세는 거대한 인구 이동과 맞물려
 - 중국의 기울어진 출생 성비(남자 118명 대 여자 100명)는 2020년이 되면 약 2천4백만 명의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해
 - 또한 여성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워지면서 남성을 고르는 데 더 까다로워져
- ▶ 전통주의자인 Yu씨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아
 - 그는 미래의 신부가 될 사람에 대해 “아직 적절한 때 적절한 장소에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 것 뿐”이라고 말해
 - 다른 총각들은 다소 조급해
 - 지난 달 중국의 남부 도시인 광저우에서는 “10개 도시에 있는 백만 장자들이 배우자를 찾고 있어요 쇼”가 시작돼
 - 11명의 중국 갑부들이 고급결혼회사에 중국돈 5백만 위안(79만 달러)를 주고 도움을 요청해
 - 그 중 한 명은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내걸어: 신부 후보는 20~26세, 몸무게 50kg 미만이어야 하며 혼전 성경험이 없어야 함.
 - 현재까지 5천 명이 넘는 여성들이 지원해

2012년 6월 9일 / The Economist

〈원문 링크: <http://www.economist.com/node/21556621>〉